

‘팝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 “이태원 참사 추모 노래 준비”

6년 만에 내한공연... ‘크리스마스 심포니’
내달 3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서 공연

“음악은 인간을 위한 음식과 같아요. 우리는 음악 없이 살 수 없죠.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진정시켜줄 무언가를 듣고 싶어 해요. 각각의 음악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멋진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팝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62)이 6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영국 출신 팝페라 가수 1986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초연에서 ‘크리스틴’ 역을 맡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넬라 판타지아’,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등은 그를 대표하는 곡이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듀엣곡 ‘타임 투 세이 굿바이’는 전 세계 120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13세 때 극장 무대에 데뷔했고 3옥타브가 넘는 음역으로 클래식과 팝, 뮤지컬 등을 넘나들며 팝페라 장르를 개척한 소프라노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리스마스 심포니’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오는 12월3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공연한다.

최근 뉴시스와 서면 인터뷰로 만난 그는 “모두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마스나 연휴 시즌에 많은 사람의 감정에 부응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매년 이맘때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한데 모은 쇼를 만들고 싶었죠.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면은 이즈음 사람들을 슬프게 잃은 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를 고려해 종교적이거나 애절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는 공연에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노래도 부른다. 뮤지컬계 거장이자 전 남편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레퀴엠 중 ‘피에 예수(Pie Jesu·자비로운 예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국을 위해,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려 줄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과 부상자,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곡들과 히트곡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크리스마스 곡이 아니어도 편곡으로 분위기를 더했다. 투어 때마다 라스베이거스 쇼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의상은 화제였고, 이번 공연

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조명과 의상으로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술적이고 신비로운 그리고 전통적인 느낌도 있다. 다양한 비주얼로 청중들에게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죠. 멋진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음악에 귀 기울여주세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력엔 꾸준한 연습이 뒷받침된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보컬 연습에 매진하며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저는 항상 노래하고, 레슨을 받는다. 하루 중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내 목소리를 계속 듣고 돌보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훈련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노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목표는 ‘크리스틴’ 같은 역할을 맡았을 때 무언가를 완성했다고 느끼는 거죠.”

최근 라스베이거스와 멕시코 공연을 시작으로 투어를 재개한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투어가 무척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달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2736번째 스타로 이름을 올렸다. “라스베이거스 등 투어는



정말 즐거웠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도 재미있고 놀라웠다”며 “아시아 역시 항상 공연하며 방문을 즐겼던 나라”라고 말했다.

K팝도 좋아한다는 그는 “한국의 멋진 점은 방문할 때마다 변해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건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이었다. 이후 몇 년 동안 놀랄 만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제가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바쁘고 멋진 느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시골이나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곁들인 멋진 식

사를 할 때 색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부터 산과 언덕, 바다와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모두 있어요. 음식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죠.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도 많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는 항상 놀랍죠.”

열정적인 한국 팬들도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다. “한국 팬들은 항상 제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음악을 즐기죠. 사람들에게 제 영혼과 목소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기안84·송민호, 아트한 런던 투어... ‘MBC 나혼자 산다’

배우 배다빈의 D.I.Y 하우스 최초로 공개



사치갤러리에 초대돼 영국으로 날아간 기안84와 송민호의 아트 런던 투어와 배우 배다빈의 D.I.Y 하우스가 최초로 공개됐다.

18일 방송된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아트한 하루를 보낸 기안84·송민호와 함께, 10년차 독립러 배다빈의 일상이 공개됐다.

먼저 기안84와 송민호는 런던의 핫플레이스 소디치에서 낭만 브런치를 즐겼다. 기안84는 “나의 뮤즈 송민호, 현무 형에게 코쿰이 있다면 내겐 민호가 있다”며 민호애했을 했다. 이후 둘은 벽화 색칠도 하고,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흔적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빈티지 샵으로 향하는 길에 기안84는 무지개 회원들을 위한 선물을 샀는데 “잃어버렸다”고 고백해 전현무와 박나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빈티지 샵을 방문한 기안 84는 송민호에게

웃을 골라 달라고 부탁했고, 송민호는 분홍색이 포인트인 코트를 추천했다. 기안84는 “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민호가 괜찮다고 하니깐 괜찮나 보다” 생각했다. 민호의 말이 종교처럼 됐다”며 송민호의 패션 센스에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현무 형은 뭘 입어도 ‘왜지?’하는 비판적 사고로 보게 된다”며 전현무를 도발했다. 또 스튜디오에서 기안84는 “전현무와 비교되고 싶지 않다. 패션 대결을 하면 박살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며 전현무와의 패션 전장을 예고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이후 기안84와 송민호는 블랙캡을 타고 이동하며 로맨스 로망을 공유했다. 송민호는 “기차 여행 중 좌석이 바뀌고, 숙녀분에게 첫눈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안84와 송민호는 167년의 역사를 가진 화방에서 미술 도구와 재료 쇼핑을 하며 ‘썸’ 행

복을 만끽했다. 또 캠핑 사생대회에 이어 막간 런던 사생대회를 펼쳤다. 공원에 자리 잡은 이들은 영국에서 느낀 점을 자유 주제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나갔다. 기안84는 “그림 그릴 이후로 가장 낭만적인 하루였던 것 같다. 오늘 하루 아트를 즐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배우 배다빈의 일상이도 처음 공개됐다. 배다빈은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의 여주인공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배우다. 뉴질랜드에서 살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고 독립 초기엔 친구 집 배란대에서 살기도 했다는 우여곡절 청춘 스토리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배다빈이 사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성 가득한 ‘D.I.Y 하우스’로 감탄을 자아냈다. 배다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만 원 조금 넘었다”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이에 코드 쿤스트는 “감각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며 전현무를 향해 “한 40배 쓰지 않았나?”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배다빈의 부지런한 일상도 돋보였다. 환기와 청소를 아침에 연 배다빈은 반려견 들레 산책시키기, 단골 빵집 쇼핑, 아파트 옥상 낭만 브런치, 뜨개질로 강아지 한복 만들기, 버스 타고 시장 나들이 등 시간을 야무지게 썼다.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뉴질랜드의 로드뷰를 감상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엑스트라로 시작해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밀바닥부터 차근차근 밝아온 지난날을 떠올려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배다빈은 “동생이 아이돌로 활동 중”이라고 밝히며 “베리베리의 호영이다. 호영이는 다섯째”라고 고백해 시선을 모았다.

방송 말미에는 박나래-기안84-김해준의 ‘감나무 너 쉽지 않네’, 코드 쿤스트-다이나믹 듀오의 ‘돼지 트리오’가 예고돼 기대감을 높였다.

신동엽, 13년 만의 야외예능에 ‘동공 지진’

오는 25일 JTBC 오후 8시50분 첫 방송



JTBC 신규 예능 ‘손 없는 날’이 ‘추억 이사 서비스 개시’ 티저 예고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이날 영상에선 처음으로 대면한 2MC 신동엽-한가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한가인은 “이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둘을 보면 ‘부실’ 내지는 ‘비실’하지 않나”며 철저한 자기 객관화도 시작해 웃음을 선사한다.

신동엽-한가인은 프리미엄 포장이사 서비스는 이사 전문가들에게 맡겨둔다. 이삿짐만

큼 쌓여있는 사연자들의 수많은 추억들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소중하게 옮겨주고자 ‘의뢰인 픽업 서비스’부터 ‘육아&돌봄 서비스’, ‘멘토링 서비스’, ‘추억 견적 서비스’까지 특별한 이사 서비스를 개시한다.

먼저 한가인은 비현실적인 여신 미모가 무색하게 용달차를 수준급으로 운전하는가 하면, “운전을 굉장히 티프하게 한다”는 신동엽의 말에 “제 기준으로는 지금 기어가는 것”이라며 숨겨 왔던 질주 본능을 꺼낸다. 그뿐만 아니라 한가인은 운전 중에도, 걷는 중에도, 심지어 식사 중에도 쉴 틈 없는 토크 질주까지 펼친다.

반면 신동엽은 13년 만의 야외 예능 출연에 초조함과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차량에 설치된 거치 카메라에 동공 지진을 일으키는 어리숙한 모습을 선보여 색다른 웃음을 자아낸다.

나이가 야외에서 고장 나버린 ‘예능 고수’ 신동엽을 되레 끌려 먹는 ‘예능 초보’ 한가인의 반전 케미가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손 없는 날’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김민석-박근형 PD가 JTBC로 이직 후 만드는 첫 작품이다. ‘1박2일 시즌4’를 성공시킨 노진영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오는 25일 오후 8시50분 첫 방송.

뉴진스, ‘어텐션’도 스포티파이 1억 스밍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데뷔곡 ‘어텐션(Attention)’이 또 다른 데뷔곡 ‘하이프 보이(Hype boy)’에 이어 세계 최대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회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20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발표된 뉴진스의 ‘어텐션’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누적 1억 23만8036회 재생됐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하이프 보이’가 스포티파이 재생 수 1억 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뉴진스는 데뷔앨범 ‘뉴진스’만으로 스포티파이 재생 수 1억회 이상인 곡을 두 곡 보유하게 됐다.

또한, 뉴진스는 데뷔 앨범 모든 수록곡을 발표 첫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한국’ 차트에 올리며 지난 8월 공식 방송활동을 마친 이후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민희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어도어(ADOR)의 걸그룹 뉴진스는 데뷔하자마자 4세대 간판 걸그룹으로 떠올랐다. 내년 1월 새 싱



글 ‘OMG’를 발표한다.

‘SG워너비’ 김진호 단독 콘서트 전석 매진... ‘막강 티켓 파워’

3인조 남성 그룹 ‘SG워너비’ 김진호 단독 콘서트 ‘듣는 사진전’이 티켓 오픈 1분만에 3회차 전석 매진됐다.

‘듣는 사진전’은 사진전을 주제로한 김진호의 콘서트다. 김진호가 지난 2019년 진행한 콘서트 ‘노래샘’에 이어 3년 만에 진행되는 단독 공연이다.

소속사 목소리 엔터테인먼트는 “김진호가 오랜 시간 단독 콘서트를 기다려준 팬들을 위

해 고품격 라이브 무대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소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호는 지난 2004년 그룹 ‘SG워너비’로 데뷔해, 솔로 정규 앨범 ‘오늘: 당신의 외로움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노래샘’ 등을 발매하며 활동했다.

‘듣는 사진전’은 내달 29~30일 오후 7시 30분, 31일 오후 6시 서울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된다.

